

지역 소식통

정읍시 어류이동병원 운영

정읍시가 지역 내 양식장 현장에서 수산생물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을 운영한다.

시는 16일 내수면 양식어업성·출하기를 맞아 지역 내 102개 생산어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식어류 이동병원' 현장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류 이동병원은 양식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기생충성,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초동진단과 처방을 하게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기적의 도서관

3개 분야 공모 선정

정읍시 기적의 도서관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 주관하는 '도서관 특화프로그램', '귀요미 인문학'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인문독서 아카데미' 총 3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3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서관 특화프로그램'은 향기공화국 정읍 브랜드에 발맞춰 꽃향기를 주제로 총 6회에 걸쳐 시민과 함께 기적의 도서관 옥상에 꽃을 심고 가꾸는 프로그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선별진료소용 컨테이너

부안군 하절기대비 설치

부안군보건소는 하절기를 대비해 선별진료소용 텐트 2동 중 1동을 철거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9일 보건소 광장에 냉방이 가능한 선별진료소용 컨테이너를 설치해 검체채취 전 선별진료를 실시하고 철거하지 않은 텐트 1동에도 냉난방기를 설치해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선별진료소용 컨테이너는 여름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상담공간을 제공하고 장시간 현장에서 근무하는 방역요원들을 보호하며 원활한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표 블랙보리 美 진출

하이트진로 음료, 국내 첫 메이저 유통 '트레이더즈' 입점 복분자·수박 등 기능성 음료 개발작수 연타석 홈런 예고

한반도 첫수도 고창표 블랙보리 음료 미국시장에 진출하면서 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블랙보리를 시작으로 복분자, 수박, 멜론, 체리, 발효식초 등 건강한 기능성 음료의 연타석 홈런을 예고하고 있다.



년 역사의 700조원 규모 세계 음료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고창군은 2018년 하이트진로음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검정보리 특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연계한 보리 신품종 종자 보급, 국내 최대 검정보리 재배단지 조성, 보리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청보리 축제와 연계한 보리국수 음식 개발 미국 등 해외 수출 등 보리산업 발전을 위해 공을 들였다.

여기에 업체도 2018년 고창과 해남에서 검정보리 150톤을 시작으로 지난해

400톤을 수매하면서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했다. 이에 더해 음료 라벨에 '고창에서 생산된 보리로 만든다'는 상생협력 사례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웠고, '착한음료'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소비자가 선정한 농업·기업간 농식품상생협력 우수기업', '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최우수상)' 등에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굵은 코로나19이후 면역력과 건강 기능성 음료·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고창군과 한국체육대학교가 '건강식품 및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고, 복분자와 수박, 멜론, 체리, 발효식초 등 지역 명품 농특산물을 기능성 스포츠음료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농생명 식품산업에 균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식품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농산물 구매 증가 효과로 농업인들은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가 한국어 낮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인 생활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정읍시 '외국인 생활 안내 책자' 제작·배포

정읍시가 한국어 낮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인 생활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거주 외국인인 매년 꾸준히 늘어 2020년 현재 2,83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중 베트남인이 1,153명으로 집계되어 정읍시 거주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베트남어로 된 '외국인 생활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를 결정했다. 안내서에는 지역 소개부터 외국인 생활을 위한 체류지 변경과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등의 생활민원과 주요 기

관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 쓰레기 배출 방법 등 사회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기초질서에 대한 안내 사항도 만나 볼 수 있다. 안내서는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외국인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외국인 생활 안내 책자가 외국인 주민의 정읍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문화 가족·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효자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다양한 경로사업 화제

100세 어르신 민수무강 잔치 등

'효자군수' 유기상 고창군수가 '즐겁고 살맛나는 노후, 배려의 고창군정'을 목표로 다양한 경로사업을 펼쳐 화제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모두 761억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확보해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경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경로이·마음비 지원사업(5776명) ▲100세 어르신 민수무강 축하잔치사업(21명)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사업(2178명)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270개소, 8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1917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148명) ▲무료급식 지원사업(150명) ▲거동불편자보행 보조기지원(247명) ▲무장교리자연장 조성사업(37억) ▲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176억) 등 50여 개의 경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관내 사회 복지시설 11개소에 열화상 카메라를 전라북도 최초로 지원하여 전염병 예



유기상 고창군수가 '즐겁고 살맛나는 노후, 배려의 고창군정'을 목표로 다양한 경로 사업을 펼쳐 화제다.

방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21억), 공약형 노인 일자리 인건비 선지급(4억), 공약형 노인 일자리 인센티브 지급(1726명/4억) 등을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고창군청 임채남 사회복지과장은 "어르신 여가문화 조성과 활기찬 노후를 위한 건강강진 사업 추진 등 어르신이 행복한 효자 정책을 추진하고 발굴해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청년 구직난 '숨통'

행정체형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 모집... 휴폐 통해 접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막대한 청년 구직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청년 일자리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행정 업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 경력을 쌓고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22일) 이전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내 소재 전문대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특별모집(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30명과 일반모집 70명, 총 100명을 모집하며, 2019년도

아르바이트 참여자, 휴학생, 방학중인 대학생, 사이버 대학생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공개 전산 추첨을 통한 선발로 7월 3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간 주 5일(주말제외)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며 근무수당은 1일 6만1870원이다.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 캠프장 등에 배치되어 자료정리와 사무보조, 현장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진섭 시장은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 참여 대학생들이 행정업무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 설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 모집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을 참고하거나 정읍시청 총무과(063-539-513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